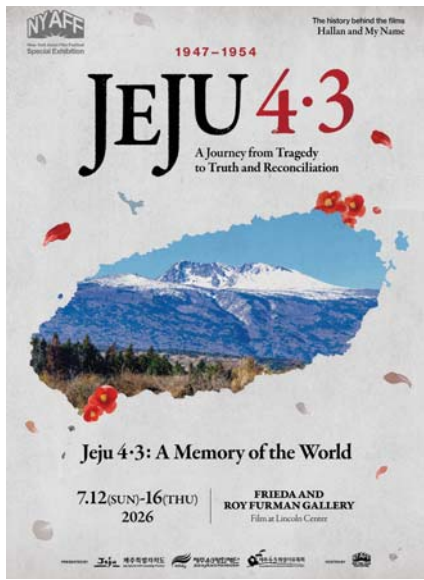




뉴욕아시아영화제 연계 제주4·3 국제 특별전 홍보물.

4·3 영화 ‘내 이름은’ ‘한란’ 미 뉴욕아시아영화제 초청 도, 연계 행사로 4·3 특별전

제주4·3을 다룬 영화 두 편이 미국에서 상영된다. 이에 맞춰 4·3을 소개하는 전시도 펼쳐진다. 제주도는 뉴욕 링컨센터(Film at Lincoln Center)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욕아시아영화제(New York Asian Film Festival)와 연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4·3 국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뉴욕아시아영화제에 4·3을 그린 영화 ‘한란’과 ‘내 이름은’이 공식 초청되면서 기획했다. 지난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을 바탕으로 4·3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미군정 시기의 역사적 상황 등 사건의 시대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등 과거사 해결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서 4·3의 의의도 알린다.

제주도는 문학, 미술을 통해서도 4·3에 대한 현지 관람객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인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출신 미술인인 강요배 작가의 대표작 ‘동백꽃지다’ 등 관련 콘텐츠를 전시한다.

전시 개막 행사는 오는 12일 오후 4시. 같은 날 오후 6시30분에는 영화 ‘한란’ 상영회가 진행된다. 전시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내 이름은’이 현지 관객들과 만난다. 전선희기자

서귀포 앞바다 해녀 삶 합창곡으로

서귀포합창단 정기 공연
‘해녀의 꿈’ ‘서귀포연가’
해녀 소재 위촉곡 초연
오는 9일 서귀포예당서

서귀포 앞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해녀. 그들의 이야기가 창작 합창곡에 담겼다.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의 제88회 정기 연주회에서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당 의전당 대극장.

이 공연은 ‘해녀의 노래-파도를 넘나든 숨소리, 서귀포의 노래가 되어 흐르다’란 제목을 달았다. 2026 서귀포합창단 위촉곡으로 탄생한 해녀 소재 합창곡을 상임 지휘자 박위수의 지휘로 선보인다.

서귀포합창단은 이날 김지현 작곡·박현 작시 ‘해녀의 꿈’과 ‘서귀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정기 연주회 포스터에 실린 해녀 불턱과 바다 이미지. 서귀포합창단 제공

포연가’를 초연한다. ‘해녀의 꿈’은 물질하는 해녀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읊은 시를 바탕으로 물결이 너울거리는 모습을 음악적으로 풀어냈다. ‘서귀포연가’는 보목 포구와 그 주변의 파스한 풍경을 품은

작품이다.

또 다른 위촉곡인 김바하 작곡·작사 ‘해녀할망’은 ‘서귀포 바당’, ‘고치글라 고치가개’, ‘내 똥은 물질 안했으면’, ‘해녀할망’ 등 4악장으로 짜였다. 숨비소리와 해녀의 물질 장면을 현장감 있게 그린 곡이다. 플루트, 마림바, 팀파니와 함께 해녀할망 역의 솔로 연주가 어우러진다.

이번 음악회에선 우효원 작곡 ‘아! 대한민국’, 박위수 편곡의 ‘록 메들리’도 준비했다. ‘아! 대한민국’은 두 대의 피아노, 팀파니, 전통 북 연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웅장함을 뽐낸다. 4성부 합창으로 편곡한 귀 익은 ‘록 메들리’는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 연주에 박연술의 안무가 더해진 무대를 펼친다. 무료. 관람권 예약은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서귀포E티켓.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루씨쑨의 ‘파라다이스 제주’.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공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 일상에서 펼쳐지는 낙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벤티’
루씨쑨 작가 초대 민화전

‘뜻을 품은 그림 민화’ 특별전(8월 23일까지)을 운영 중인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민화의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전시를 펼치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된 루씨쑨 작가 초대전이다.

박물관 입구에 자리한 갤러리 벤티

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전시는 ‘낙원, 제주를 걷다’란 이름을 달았다. 박물관 측은 “저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저마다의 낙원을 발견하는 전시”란 의미로 붙여진 제목이라고 했다.

전시작은 한지에 채색한 ‘정방장생도’ ‘파라다이스 제주’ 두 점. 박물관 내부에 발을 디딘 관람객들을 따뜻한 색감으로 맞이하는 그림이다. 대학에서 동양화와 디자인을 공부한 루씨쑨 작가는 ‘정방장생도’에서 바다와 맞닿은 서귀포 정방폭포를 배경으로 서평,

클라이밍, 요가 등 오늘날의 풍류를 동물이 등장하는 민화의 언어로 재해석했다. ‘파라다이스 제주’에는 꽃피고 열매 익어 가는 땅에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장면을 통해 평범한 하루의 행복을 표현했다. 전시는 오는 11월 8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갤러리 벤티는 박물관 내 ‘별이 드는 곳’이란 뜻을 담은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공간이다. 방문객에게 제주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운 감성을 전하기 위해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해 전시해 왔다. 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집합관 <507>

구성:(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야으덜아, 이제부터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쓴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호 디서 ‘복름신디 곤는 말’에 대한 시 이악을 햏여보켜.”

복름신디 곤는 말

나가 밝은 말털이여
나가 훌쩍 올라탄
묵심낭 둘러 본 말털이여

나가 사랑했던 말털이여
미와홀 수 웃인 말털이여

부처럼게도 대군대군
나는 촌 말이 하났저
이제 골암시메 미안하다
나 죽국 저 뽕들 남양
입 꼭 죽곤 냥
그 말털 문 뜬내리라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충>
<계속>

제주어 풀이

- *밝은: 밝은
- *훌쩍: 훌쩍
- *묵심낭 둘러 본: 함부로 달려버린
- *사랑했던 말털이여: 사랑했던 말털이여
- *미와홀 수 웃인: 미워할 수 없는
- *부처럼게도: 부끄럽게도
- *대군대군: 일일이 대꾸하는 모양
- *하났저: 많았네
- *골암시메: 말하노니
- *죽곤양: 다문 채
- *문 뜬내리라: 다 추억하리라

취 임



위 성 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강천관 사무국장 김철민
현성의 홍행표 김종우 박광일 장행관 김희찬 고성영
강길홍 문호진 김명수 허 철 강은수 김범준 양인혁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